

큰스님 수행한담

정토 가꾸게 됩니다”



1967년 불일종 제28회 본말사주지포교사 수련대회 때의 모습. 앞줄 왼쪽 세번째가 경조스님, 가운데 앉아 있는 스님은 태하스님.

지 모두가 명심하고 따라야 할 부처님 법입니다. 이대로만 따른다면 불국토가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가 거기지요.

한때는 보덕굴에서 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절실하게 더욱 확고하게 깨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은사스님께서 “경의 제목을 주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화두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식에 소금물만 먹으며 공부하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말을 들을 때마다 슬퍼지기도 하고 은사스님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승가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님들은 고행을 하려하지 않지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공양을 마치면 잠자기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TV도 봐야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얻어야 하니 공부에만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

“한번만 살고마는 인생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의 과보 만드는 원인입니다”

스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다같이 물에 빠져 있지만 빠진 사람과 건지려 들어간 사람은 분명 다르지요. 중생은 생사에 지배를 받지만 보살은 생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스님과 중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양약(良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그 양약은 극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약이라 하더라도 명의에게는 목숨을 구제하는 양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근본은 다름 아닌 공부의 깊고 얕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된 자는 정법을 말하더라도 사법(邪法)이 되고 정법자는 사법을 말하더라도 정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하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 요즘 음력 사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모두 중생들의 덕택인데 어찌 계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내가 소의하고 있는 <법화경>

지금 시대에는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법화사상이 필요합니다. 온 천하가 다 옳다고 해도 그른 것은 그런 것이고, 다 그르다고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왜 부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뱀을 맞아도 하고, 그른 말은 청천을 받아도 하지 않는 대승적인 용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지혜와 용기가 <법화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화사상을 만나기가 눈먼 거북이 큰 바다에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법화사상을 만나기가 이처럼 어려운데, 이 법을 만났으니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의 과보를 만드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정토가 됩니다. 극락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극락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길이 곧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승한 것은 택하고 열등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 집착하면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버릴 줄 알아야만 수승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법화사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구하지 않고서는 바른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해 보세요. 나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를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법화경> 공부와 더불어 보시·지계·인욕을 행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 없이 좋을 것입니다. 참 삶의 가치는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발심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가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이금석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8년전 병환중인 아버님의 요양을 위해 논산의 한 집에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으로 소문난 그 집에는 우리 외에도 몇몇분이 함께 생활했다. 어릴적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주 집에 갔었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기껏해야 초파일에 연두 하나 다는 정도였던 내게 당시 절 생활은 그자체가 수행이었다.

주지스님의 가르침대로 아침 저녁 예불은 물론이고, 시간 나는대로 참선도 하고, 염불기도도 드리고, 참회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집심으로 참회하오나 앞으로 다시는 업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았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며칠이 지난 어느날 기도중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 쏟아졌

~8시 30분 까지 정각원에서 좌선을 한다. 전 회원이 정각원을 사랑방처럼 느끼며 좌선회에 참가하고 있다.

좌선회 활동을 시작한 후 좀 더 깊은 체험을 하고싶은 생각에 동료인 홍영식교수와 함께 송광사 4박 5일 출가수련회도 다녀왔다. 수련년 동안 굳은 내뿜은 가부좌가 되지 않았고, 수련기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을 했지만 가부좌가 되지 않아 반가부좌만 하면서 수련을 했다. 지금도 나는 가부좌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더 많이 수련을 하고, 그 수련이 무리익을 쫓어나 가부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참선수행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잘 안되는 것이라 좌선회에서 도반들과 함께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의 좌선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길때마다 길상사 주발 선수련회도 참가하면서 나름대로 수행의

공대 교수들과 함께 매주 좌선모임
‘한글대장경’ ‘불교전서’ 전산화 동참

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오랫동안 피워 온 담배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하자 금단증상 없이 일순간에 끊을 수 있었다. 이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연례행사로 치루던 기관지염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 일을 계기로 불교가 새롭게 내게 다가왔다.



깊이와 폭을 넓혀가려고 하지만 참선수행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항상 실감한다.

요즘 나는 좌선회 활동외에 전자불전연구소의 일을 돕고 있다. 불교학자,

국문학자, 공대교수 등 전자불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다. 지금 <한글대장경>과 <한글불교전서>를 작업중이다. 94년도 해인사서 열린 EBTI(전자불전회의)에 홍영식교수와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것이 인연이 돼 참가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진월스님, 대장경연구소 총림스님, 랭카스터 교수 등을 만나면서 불전전산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여하튼 앞으로 좌선회 활동과 함께 내가 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불전전산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좌선회를 보다 많이 알려서 좋은 환경에서 다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매년 2박3일간 가는 사찰 연수회도 보통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연수회에서 했던 참선을 계속하기위해 나는 공대 동료교수와 함께 당시 정각원장이던 보광스님에게 매주 좌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기계 컴퓨터 전기 화학 등 공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이 정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내용이 대부분인 탓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신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보광스님은 흔쾌히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스님의 지도아래 좌선회가 꾸러졌다. 20여명이 공대교수가 주회원으로 좌선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부처님 법대로 살면 行마다 正道돼요”
“이웃위해 최선 다하는것 선업 짓는일”

것이 말은 쉬워도 그것만큼 힘들고 외로운 것도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사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은사스님께서 다른 스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경조 그 녀석 한 번 혼내주고 싶은데 도저히 짬을 안 준단 말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공부한다고 경에만 매달려 있으니 그런 제자가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모름지기 한 몸이어야 합니다. 불가에서도 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로 탄뎀이 어찌올 바른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까. 요즘은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데 그런

면서 공부해야 더욱 뜻이 깊은 것입니다. 공부가 낫지 않으면 중생을 올바르게 제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생들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요즘 스님들에게는 신도를 교화하기보다는 신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실이 바늘을 따라 가야지 바늘이 실을 따라가서는 바느질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이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부가 깊어야 하는 것도 이 때 문입니다.

스님이나 중생은 넓게 보면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세상을 물에 비유해 본다면 중생은 물에 빠진 사람이요,

은 모든 중생들에게 숙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법화경>을 보면서 느꼈던 법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범부로 태어나서 이처럼 큰 법을 만났다는 생각에 며칠동안을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50년 가까이 <법화경>을 읽고 또 읽어왔지만 참으로 큰 법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과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법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현명한 사람도 많고 미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명한 사람도, 미혹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예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PCS폰 무료로 160분 무료 통화까지!

016 농치지 맙시다! 대축제 3월 26일까지

농치지 맙시다 I 최신 PCS폰 무료 제공

아래의 가입조건을 갖추어 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조건
 - 1) 요금서비스 : 에이스요금 또는 프리요금중 택일
- 행사대상모델
 - ▶ 가입조건 모두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 변경, 요금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 ▶ 가입비 별도(불납가능) 및 1년간 의무사용 조건
 - ▶ 상기모델은 조기에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지로를 통한 요금납부는 해당안됨



농치지 맙시다 II 신규가입자 누구나 160분 무료통화 제공

행사기간중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께 160분 무료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 무료통화 증명방법
 - 가입 익월에 제공
 - 미사용분 이월 사용 불가
 - 무료통화는 국내 통화만 가능(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대 등 제외)

농치지 맙시다 대축제 신청방법

- 서울 02)732-1522, 02)737-8881로 전화주시면
-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 함